

수질기준 초과 방류수 팔당호 유입

환경부, 2001년 3개 하수처리장 기준치 위반 ... 난개발 진행으로

팔당유역의 하수처리장 3개소가 2001년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당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수질개선의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팔당호와 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돼 수도권 식수원을 오염시켰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전국 17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3개소가 2001년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

하루 처리용량 7000톤인 양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4.8mg/l로 수질기준 10mg/l를 50% 정도 초과했고, 총질소와 총인(수질기준 각각 20mg/l와 2mg/l)도 26.8mg/l와 3.2mg/l로 기준치를 넘었다.

처리용량이 3만6000톤인 용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도 BOD 12.3mg/l, 총질소 46.9mg/l, 총인 3.2mg/l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16만톤인 구리 하수처리장은 BOD가 14.4mg/l로 기준을 초과했고 부유물질도 10.3mg/l로 기준치(10mg/l)를 넘었다.

양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남한강, 용인 하수처리장은 경안천을 통해 팔당호로 유입되고, 구리 하수처리장은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3곳의 방류수는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권역의 수질악화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팔당 인근에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위락시설 등 오염원이 마구 들어서는 난개발이 자행되면서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 처리장의 2001년 하수 유입량은 하루 평균 7131톤, 용인은 4만712톤, 구리는 20만3074톤 등으로 모두 시설용량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3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년 전부터 계속 지적받아 왔으며 현재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 시설확충이 끝날 때까지는 하수의 완벽한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 종합대책이 시행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4000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비난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1999년의 BOD가 1.5ppm, 2000년 1.4ppm, 2001년 1.4ppm으로 여전히 수질기준 2급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도 1995-96년 이전보다 못한 상태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8/ 02 >